

강릉을 대표하는 친환경 공원으로 ... 강릉 사근진 해변

사근진해변은 강릉을 대표하는 경포해변과 맞닿아 있다. 길이 600m, 24,000㎡의 백사장이 있는 작은 해변으로 파스텔톤의 알록달록한 테트라포트와 해변 전체를 조망하는 해중공원 전망대 등이 있어 사진 명소로 손꼽힌다.



사근진(沙斤津)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옛날 삼남지방에서 사기를 팔러 왔던 사람이 이곳에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조그마한 배 한 척으로 고기도 잡고 사기도 팔며 살았다 하여 '사기장사가 살던 나루'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찻집이 많은 곳으로 강릉 시민들이 자주 찾던 지역이었지만, 최근 해안 침식 현상이 심화되며 인근 주택가까지 붕괴 위험에 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국민안심해안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2023년부터 나무숲 외에 어떤 인공구조물도 들어설 수 없는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소나무 숲과 바다, 해변과 인접한 너른 꽃밭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경포해변을 지나 강문해변까지, 북쪽으로는 사천해변까지 바닷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604번길 16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 보령 원산도해수욕장

원산도는 충남에서는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오랜 기간 육로가 없어 배로 왕래해야 했지만 원산안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이들이 원산도를 찾고 있다. 옛날에는 고란도라고 불리다가 산이 높고 구릉이 많아 원산도(元山島)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여름에는 가족단위 피서객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을에는 낚시와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섬의 남쪽으로 크고 작은 해변이 줄지어 이어지는데, 백사장 규모가 30km에 달한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원산도해수욕장이다. 조류의 영향이 적어 백사장이 넓고 서해안 해변 중에서는 특이하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백사장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숲과 야영장도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산책과 숙박, 숲 체험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다. 산책로와 숙박지구를 조성 완료하고 하반기에 임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어 해변과 함께 들러볼만 하다. 📍

●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

